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EN-HUR
가제 : 벤허
저자 : Carol Wallace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2016년 영화로 새롭게 리메이크될 ‘벤허’, 원작자 루 월리스의 증손녀가 새롭게 재현한 소설

미국의 작가 루 월리스가 1880년에 쓴 소설 《벤허》는 출간 이후 60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의 영예를 누렸다.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원작을 영화로 탄생시켰고, 영화 역시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석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영화상 가장 경이로운 작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처음 영화화된 지 60여 년이 지나 벤허는 새로 리메이크되어 관객들을 찾아 올 예정이다. 더불어 루 월리스의 증손녀인 캐롤 월리스는 원작 소설을 새롭게 재현해 냈다. 원작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경으로 주인공 벤허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소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20 여 년이 지난 유대의 땅. 유다 벤허라는 청년이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유대의 명문 귀족으로 살고 있었다.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 시가 행진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권력욕에 눈이 먼 벤허의 로마인 친구 멧살라가 벤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결국 벤허는 살해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어 갈리선에 오른다. 배 위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3년을 보낸 어느 날, 로마의 새로운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가 배에 오른다. 얼마 후 해적선이 이들의 배를 습격하자 벤허는 사령관의 목숨을 구한다. 아리우스 사령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 함께 로마에 입성한 벤허는 그의 요청으로 양자가 된다. 죽은 줄만 알았던 벤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모두가 깜짝 놀란다. 멧살라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복수를 꿈꾸며 기회를 노리던 벤허는 멧살라가 출전하기로 한 전차 경기에 자신도 출전하기로 결심한다. 멧살라는 톱니바퀴가 달린 전차로 다른 전차들을 무참히 파괴하는 공정치 못한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벤허가 모는 전차에 접근하여 채찍을 휘두르지만, 벤허는 결국 그 채찍을 빼앗고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우승자가 되어 빌라도 총독에게 월계관을 받는 기쁨도 잠시, 벤허는 멧살라로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센병에 걸려 다른 환자들과 계곡에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한다.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간 벤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던 날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그리스도에게 물을 건넨 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은 깨끗이 낫는다.

유다 벤허의 기구한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최고의 고전 소설을 다시 만나는 재미

《벤허》의 원작자인 루 월리스는 북군 소속 장군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이다. 전장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혈투를 벌였지만 2만 명에 달하는 아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패전 장군으로 불명예를 안은 채 살았다. 군에서 제대한 후 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기차에서 옛 부하였던 로버트 잉거솔 대령과 우연히 만난다. 무신론자인 대령과 신의 존재에 관한 혼란스러운 대화를 나눈 후, 루 월리스는 예수의 인간적 면모를 주제로 한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4년 동안 예수의 행적을 좇는다. 그러나 자세히 파고들수록 예수는 신일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벤허》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의 증손녀가 재현한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장군으로, 소설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루 월리스의 삶과 《벤허》를 쓰게 된 배경, 처음 출간 후 세상의 반응, 그리고 1959년 영화로 만들어진 과정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져 있다. 2016년 초 개봉을 앞둔 새 리메이크 영화를 기다리며,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원작 소설을 다시 읽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자 소개>

캐롤 월리스(Carol Wallace)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예술사를 공부했다. 《To Marry an English Lord》 등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썼다.

제목 : OUR ENDLESS NUMBERED DAYS

가제 : 무한대로 흐르던 나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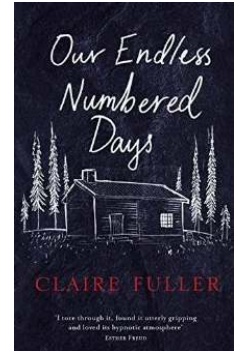
저자 : Claire Fuller

출판사: Tin House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17일

분량 : 382 페이지

장르 : 소설



2015년 ‘데스몬드 엘리엇 상’ 수상작, 신예 작가의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심리 스릴러 소설

“다른 세상은 텅 비어버린 끔찍한 곳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작은 왕국을 빼고 다른 곳은 전부 그렇게 됐어...” 겨우 여덟 살이던 페기 힐코트는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단 둘이, 어느 산간 오지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원래 런던의 안락한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생존주의자가 되어버린 아빠 제임스는 딸만 데리고 이 오지에 정착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딸에게 세상이 아빠와 삶을 이어간다. 오두막을 고치고, 근처 강에서 수영도 하고, 식량을 구하면서 삶을 이어간다. 혹독한 겨울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9년을 숲에서 보내고 어느덧 열일곱 살 소녀가 된 페기는, 숲에서 낫선 부츠 한 켤레를 발견한다. 누구의 신발인지 찾아 다니기 시작한 페기. 그녀에게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찾아오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엄마가 있는 집으로, 문명 세계로 다시 나오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손에 이끌려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던 소녀. 소설은 페기가 런던으로 돌아와 엄마와, 그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아홉 살짜리 남동생과 재회하고 그 수수께끼 같던 9년간의 생활을 회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과연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빠는 어디로 갔을까?

결혼 전, 페기의 엄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녀가 여덟 살이나 어린 제임스 힐코트라는 십대 소년과 스캔들이 터지고 급기야 그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음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둘 사이에서 페기가 태어났고, 세 식구는 런던에서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다. 그러나 제임스가 ‘북런던 후퇴자들’이라는 이상한 단체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미래에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는 확신, 그리고 그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맹신으로 제임스를 비롯한 회원들은 ‘생존주의’라는 극단적인 사고에 사로잡혔다. 특히 세상이 멸망할 것을 대비해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던 어느 회원의 주장에 완전히 몰입해 버린 제임스는, 아내가 콘서트 투어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 여덟 살이던 페기를 데리고 독일의 산 속 깊숙이 들어가버린 것이다. 하늘 높이 치솟은 산봉우리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강 근처에서 제임스는 어린 딸에게 엄마는 죽었다고, 세상은 멸망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세상의 멸망을 굳게 믿은 아빠, 영문도 모른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했던 소녀의 삶과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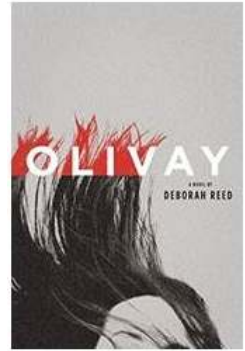
그래도 어린 소녀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며 살았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첫 번째 겨울을 지나, 혹독한 산악 환경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찾아내고 사냥도 하면서 두 사람은 9년을 그곳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나 폐기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빠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그리고 아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더 미쳐간다.

폐기는 1985년, 영양실조에 치아는 전부 썩어서 영망이 된 된 상태로 마침내 런던에 돌아와 엄마를 만나고, 흥미한 정신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불러댄다. 엄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 오랜 세월 동안 폐기에게, 그리고 제임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한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궁금증을 계속해서 자아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퍼즐을 맞추듯 조금씩 제시된 단서를 맞추며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풀러(Claire Fuller)는 윈체스터 대학교에서 조형예술을 공부하고 23년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40대가 되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플래시 소설, 단편 소설을 다수 완성했으며 위 소설을 첫 번째 장편으로 발표했다.

제목 : OLIVAY
가제 : 올리베이
저자 : Deborah Reed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단 한 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삶, 파멸과 구원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여자의 이야기

1년 전 끔찍한 사고로 남편을 잃고 로스앤젤리스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올리베이. 그 비극적인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남편 월은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초인종이 마구 울려댈 때, 올리베이는 한창 샤워 중이었다. 대문을 두드려대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대는 누군가의 잔뜩 놀란 목소리에, 그녀는 맨발로 뛰어 나가 가운 차림으로 대문을 열었다. 이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고, 올리베이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달려갔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현장은 참혹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오토바이가 월을 정면으로 들이 받았고,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쓰러진 월은 두개골이 바닥에 바로 부딪히면서 부서지고 말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행인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대로 달아났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매 순간 다정했던 남편의 말과 음성을 떠올리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낸 지도 벌써 1년 째. 올리베이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들렀다가 헨리라는 남자와 합석을 하게 된다.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하지 않는 그녀지만, 헨리는 첫눈에 호감 가는 인상이었고 어딘지 물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동물원에서 일했고, 평화봉사단으로 아프리카에도 다녀왔다는 특이한 이력의 남자. 올리베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낀다. 불쑥 찾아온 이 낯선 남자는 마치 길을 잃고 깜짝 놀란 아이를 대하듯, 올리베이에겐 그 따뜻한 눈을 떼지 않고 눈길을 전혀 피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 날, 올리베이는 헨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온다. 그러나 그냥 하룻밤뿐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생각지도 못한 사태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 테러로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서 한 공간에 갇힌 두 남녀의 거짓말과 진실

LA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로 한 다음 날 아침, 함께 밤을 보내고 올리베이의 집에서 일찍 잠에서 깬 헨리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한다. 서로 아쉬움을 느끼며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 하지만 헨리는 아파트에서 나간 후 2시간 뒤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올리베이에겐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갑자기 시작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으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거리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올리베이의 아파트도 폭격에 창문이 온통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파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올리베이의 피가 집 곳곳에 자국을 남긴다. 시 전체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안에 갇혀 버린다. 둘은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올리베이는 여러 가지를 털어 놓는 헨리의 말이 어딘가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후, 헨리는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저 멀리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군다. 둘 사이의 묘한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불편한 대화가 이어진다. 꿈쩍없이 한 공간에 발이 묶인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남편의 죽음, 그리고 밖에서 벌어진 테러리스트 공격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올리베이는 머릿속에 떠오른 무서운 의혹을 숨기고, 본능적으로 떠오른 이상한 느낌들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섬세한 감정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흐름 속에 상실로 무너진 올리베이의 슬픔, 욕망, 공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파멸과 구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서 독자는 헨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올리베이의 정체는 또 무엇인지 탐색하게 된다.

<저자 소개>

데보라 리드(Deborah Reed)는 UCLA에서 글쓰기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작가로 활동 중이다. 《Things We Set on Fire》는 출간 6개월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 《Carry Yourself Back to Me》는 2011년 ‘아마존 에디터 선정 최고의 도서’로 뽑혔다. 그 밖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스릴러 소설 《A Small Fortune》, 《Fortune’s Deadly Descent》 등을 발표했다.

제목 : BE FRANK WITH ME
가제 : 프랭크와 함께 하려면
저자 : Julia Claiborne Johnso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2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큰 화제를 낳은 데뷔 소설 이후 절필한 여류작가와 그녀의 개성 넘치는 꼬마 아들, 둘의 특별한 삶

문학계에서 두문불출하는 여류 작가로 유명한 M.M. 배닝. 열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쓴 소설이 스무살에 풀리처 상과 내셔널 북 어워드같은 엄청난 상을 휩쓸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 소설가가 되었다. 속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잘생긴 야구선수에게 관한 이 소설은 출간된 지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 해 100만부 가량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고, 중학생 필독 도서로 고정된 지도 오래다. 사람들에게 배닝의 소설 속 주인공은 실패로 좌절된 운동선수, 혹은 폭넓은 차원에서는 저주 받은 영혼의 서글픈 삶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배닝은 데뷔작이던 이 소설을 마지막으로, 이후 단 한 권의 책도 더 내지 않았다. 최소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로스엔젤리스의 어느 맨션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문학계의 전설’ 배닝은 미국 전역을 떠돌며 하게 만든 사기에 말려들었다. 매도프를 표방한 사기꾼의 피라미드식 사기 수법에 완전히 당하고 만 것이다. 거액의 재산을 다 잃은 배닝은 결국 다시 책을 내기로 결심한다. 예상치 못한 대작이 되어버린 데뷔 소설을 쓴지 무려 40년 만에 다시 새로운 책을 내려면 당연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프랭크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게 내린 결단이었다. 아이에게 남겨 줄 재산은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력이 된 것이다. 뉴욕의 출판사에서는 그녀의 결단을 축하하면서 수월한 집필 작업을 위해 조수를 한 명 보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자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자인 배닝은 자신이 원하는 조수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한다. 아이비리그 출신이거나 영문학 전공자는 안 되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요리도 곧잘 해야 하며, 몸집은 작고 컴퓨터 박사에 어린이와 잘 놀아주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수로 선발된 앨리스 휘트니는 6개월간 이 까칠한 유명 작가의 일을 돕고 소설 진행 상황을 감시하라는 회사의 임무를 받고 LA로 찾아온다. 배닝의 맨션에 도착하자마자 착착 일을 시작한 앨리스.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배닝의 아들 프랭크를 24시간 전담하는 보모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홉 살 밖에 안 된 이 꼬마는 첫 만남부터 뭔가 범상치 않다.

까칠한 작가와 똑똑한 아들을 돌보는 젊은 조수,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소중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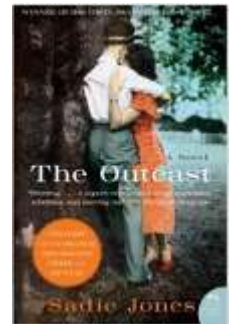
1930년대 할리우드 유명 배우처럼 나이트 가운을 걸치고 클래식 영화를 줄줄이 껴고 있는 소년. 똑똑하고 영리한 프랭크는 또래 아이들 같은 모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인지 친구가 없다. 배닝의 집필 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처리하리라 결심한 앨리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프랭크를 돌보기 시작하고, 아이와 친해질수록 자연스레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대체 아이 아빠는 누구지?” 두 사람과 함께 생활하던 앨리스는 프랭크의 매력 만점 피아노 선생님이자 정해진 거처 없이 떠도는 남자, 랜더의 정체에 강한 호기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가 혹시 프랭크의 친부일까? 혹은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후보일까? 절대 평범하지 않은 모자와 열정 넘치는 젊은 조수의 동거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배닝은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배닝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앨리스는 어린 프랭크를 데리고 배닝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하면서, 어느덧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들과의 생활을 되짚어본다. 신선하고 유머가 가득한 목소리로 때로는 날카롭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 소설 속에서, 매력적인 아홉 살 소년 프랭크는 모두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저자 소개>

줄리아 클레이본 존슨(Julia Claiborne Johnson)은 잡지 <마드모아젤>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 LA에서 생활하고 있다.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제목 : THE OUTCAST
가제 : 아웃사이드 - 루이스의 여름
저자 : Sadie Jones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08년 4월
분량 : 368페이지
장르 : 소설



2014년 7월 30일에 소개된,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소설로 현재 BBC One 에서 2부작 드라마로 방영 중

<http://www.bbc.co.uk/programmes/b062vq9g>

LA 타임즈 소설 상 최종후보작 선정 소설

1957년 영국, 열아홉 살의 루이스 알드브리지는 2년 전 교회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막 출소했다. 어린 루이스에게 갈 곳이라고는 집 뿐이었다. 그런데 2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은 새엄마 앨리스였다. 아버지 길버트는 루이스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에겐 관심이 없었고 ‘네 녀석이 망쳐놓은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고쳐졌는지 보러 가자’며 갓 출소한 아들을 욕박지른다. 루이스는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시작부터 녹록하지 않았다. 사실 루이스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전쟁에 나갔다고만 들었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다. 그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단 둘이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강가로 함께 소풍을 갔던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서 루이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아버지 길버트는 전쟁에서 돌아와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앨리스라는 여자와 결혼한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루이스는 아버지의 때 이른 재혼에 더욱 심하게 방황한다. 그로 인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루이스를 마을 사람들마저 모두 멀리하기에 이른다. 다만 루이스의 상사 디키의 딸 키트만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루이스도 키트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된다. 그런데 키트 역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 디키가 습관적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폭력의 정도가 아주 악질적이어서 얼굴에 멍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때린다든가 팔이 아파서 더는 휘둘러 수 없을 때까지 벨트로 후려친다든가 하는 식이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스는 키트를 그 집에서 구출해낼 결심을 한다.

‘어톤먼트’에 비견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두 남녀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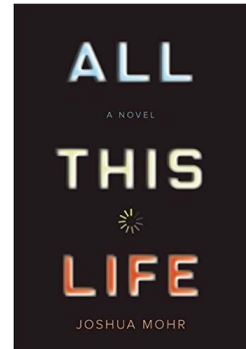
이 소설은 제임스 맥어보이와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 ‘어톤먼트’의 원작인 이안 맥이완(Ian McEwan)의 소설 ‘어톤먼트’에 비견하는 작품이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두 남녀가 상실의 아픔과 폭력의 상처로부터 서로를 구원하는 스토리가 특유의 음울하고 예스러운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올 여름, 영국 BBC One 채널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첫 작품인 <The Outcast>가 2008년 코스타 북 어워드의 First Novel Award 를 수상하는 등 각종 문학상 후보작으로 거론되면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한 Sadie Jones 는 두 번째 소설 <Small Wars>로 영국의 인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Small Wars>는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2009년 8월에 출간되었다. 그녀의 세 번째 작품 <The Uninvited Guests> 역시 영국 주요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작가는 가족과 함께 런던에 살고 있다.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제목 : ALL THIS LIFE
가제 : 이 모든 인생
저자 : Joshua Mohr
출판사: Soft Skull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1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2015년 3월 25일 뉴스레터에 소개된 소설인 ALL THIS LIFE by Joshua Mohr 가 BBC 선정 7월에 읽어야 할 책 10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되고 Publishers Weekly 등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BBC 선정 7월에 읽어야 할 책 10권 중 한 권으로 선정

<http://www.bbc.com/culture/story/20150626-ten-books-to-read-in-july>

평단 리뷰

<http://www.curtisbrown.co.uk/client/joshua-mohr/work/all-this-life>

“이 소설은 많은 이야기들의 균형을 이끌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 저자는 오프라인에서의 삶과 온라인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 Booklist

“저자의 내러티브는 유머 있고 감동적이며, 지루함이 없다. 독자들은 등장 인물들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 Publishers Weekly (starred)

출근길 다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진 동영상과 그 엄청난 여파

학교 통학 시간에 아버지의 차 뒷자석에 탄 제이크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다리 난간에 앉은 갈매기를 찍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요금소를 지나 웬 브라스 밴드가 걸어오고 있었다. 제이크는 서둘러 ‘녹화’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저만치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연주자들은 간간히 춤도 추고 악기를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면서 신나게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볼을 불룩이며 열심히 트럼펫을 불던 연주자 한 사람이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 걸어나오더니 천천히 다리 난간을 향해 걸어갔다. 트럼펫을 옆으로 던져버린 그 남자는 난간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양손을 모아 잠깐 기도를 올리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행진을 멈춘 밴드의 남은 연주자들은 연주를 계속했고, 이번에는 클라리넷 연주자가 난간으로 가더니 훌쩍 뛰어내렸다. 그렇게 한 사람씩, 차례차례, 태평양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제이크는 꿈인지 현실인지 멍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그 모습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다.

기술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관계, 망가진 인간관계의 단면

밴드 전체의 끔찍한 단체 자살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한 제이크.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고, 소식은 삼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그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실제 세상과 인간이 온라인에 만든 세상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 애리조나에 사는 새라에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큰 이슈가 된 다리 위 자살 장면을 보려고 유튜브에 접속한 새라는,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상도 온통 퍼져나갔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수군대며 새라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좁디 좁은 동네에서 그녀를 도와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비난의 눈초리를 피하려면 동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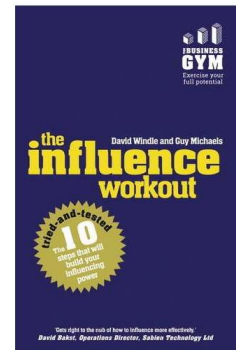
작가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현대 사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최신 기술이 어떤 폐해를 몰고 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나 같이 우리가 알고 지내는 누군가와 닮은 소설 속 인물들,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엮이고 얽힌 인물들이 악의 없이, 의도치 않게, 순식간에 처한 곤경과 끝없는 추락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사회와 기술을 추종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조슈아 모어(Joshua Mohr)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예술석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가로, 최근 작품인 《Damascus》는 뉴욕타임스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Some Things that Meant the World to Me》는 2009년 <O Magazine> 선정 최고의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Termite Parade》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중 ‘편집자가 선택한 도서’로 선정됐다.

NON-FICTION

제목 : THE INFLUENCE WORKOUT
가제 : 영향력 훈련
저자 : Gary Michaels & David Windle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6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경영, 자기계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주는 방법,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영향력 기술’ 훈련법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언뜻 생각하면 그리 원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 현장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타면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혹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논하는 동안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영향을 주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영향을 주는 있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최대한 유연하면서 능숙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알아야 할 개념과 필요한 도구들이 광범위하게 소개된다. 먼저 저자는 영향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의 원리를 설명한다. 바로 준비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원리를 토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전에서 검증된 다양한 지침과 도구들을 따라 하기 쉽게 설명한다. 차근차근 따라 하면서 자신에게 특히 취약한 부분을 짚어내면,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목차>

서론

-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 핵심 원리 /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자가평가

- 자가평가를 위한 질문:

직장과 가정에서 나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 나는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 /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1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한 방법

1. 관계 - 나의 영향력 범위 파악하기
 2. 영향력의 핵심 - 비언어적 영향
 3. 나의 목소리를 극대화하라
 4. 힘있는 프레젠테이션
 5. 나 자신을 알라
 6. 말의 힘 - 정서적, 논리적 매력 찾기
 7.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주목하라
- (...)

2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전 기술

- 팀에서 / 동료들에게 / 회의하면서 / 직원 관리 / 고객 관리 / 면접에서 / 전화통화
- 위기 상황에서 / 프레젠테이션 / 선봉에서(리더의 자리)

3부. 영향력 행사에 따르는 일반적인 문제들

-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
 - 각양각색의 팀들
 - 프레젠테이션 실패
 - 팀원들과의 갈등 상황
 - 상대가 직장 상사라면
 - 상대가 변화를 싫어한다면
 -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 (...)

4부. 유용한 기술

- 새로 습득한 영향력 기술을 상사/동료에게 적용하는 방법

5부. 마무리

- 지금까지 배운 내용 / 더 나아졌을까? / 평생 교육

<저자 소개>

데이비드 윈들(David Windle)과 가이 마이클스(Guy Michaels)는 2006년 프레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련 업체 'Opposite Leg Training'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대학, 대형 업체, 학교 교사,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목 : THE AGING MIND

가제 : 마음의 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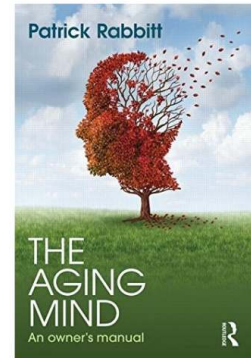
저자 : Patrick Rabbitt

출판사: Routledge

발행일: 2014년 12월 8일

분량 : 264 페이지

장르 : 의학/건강



절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노화’에 열정적으로 대비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대나 30대엔 손쉽게 해냈던 일들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변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노년기의 삶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 전문가인 저자는 50년 이상 신체와 정신의 노화를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노화의 과정을 이 책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나이 드는지,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인학 분야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감각기관과 인지 능력의 변화, 그것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억, 지능, 주의집중, 수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변화와 정신적 변화, 시간 관념과 균형 감각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힌다. 더불어 평생 익히고 습득한 기술을 계속해서 지키는 방법을 안내하고, 노화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한편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소개한다.

25장에 걸쳐 저자가 보여주는 노화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하고 따뜻한 설명은, 자신과 주변인들의 노화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괄적인 정보들은 노화에 대한 교과서 못지 않은 수준이어서 보건 관계자들이나 의학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목차>

1. 우리는 왜 늙을까
2. 변화의 속도
3. 변화의 감지
4. 생물학적인 지표
5. 기억은 왜 필요한가?
6. 다음에 할 일을 기억하는 것

7. 출처기억 - “누가 그랬어?”
 8. 단어와 이름 찾기
 9. 인생의 초창기 기억하기
 10. 나머지 인생 기억하기
 11. 시각 - 미래를 바라보기
 12. 청각
 13. 미각, 후각
 14. 더듬더듬, 비틀비틀
 15. 전반적인 지적 능력
 16. 습득한 정신적 기술을 지키는 법
 17. 지혜의 획득
 18. 다른 사람의 의중 파악하기
 19. 노인 우울증, 불안감
- (...)

<저자 소개>

패트릭 래빗(Patrick Rabbitt)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옥스포드 대학교, 서호주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 심리학회, 영국 노인학회 명예회원이며 유럽학회 소속 학자이다.

제목 : THE ESSENTIAL TALMUD

가제 : 필수 탈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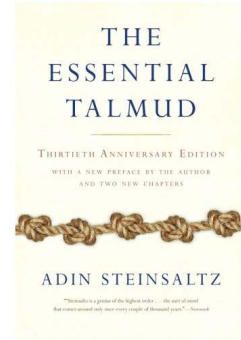
저자 : Adin Steinsaltz

출판사: Basic Books

발행일: 2006년 9월 1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종교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유대 구전 율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한 탈무드 종합설명서

유대인의 수천 년 지혜가 담긴 탈무드. 유대인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평가되는 탈무드의 주요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한 이 책에는 이스라엘 랍비, 유대 학자와 교사들을 통해 오랜 세월 전해진 유대인들의 믿음과 생활방식이 담겨 있다. 저자는 탈무드의 특징과 정신을 포착하여, 종교적 경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에 관한 지침서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신의 계율에 담긴 핵심 원칙을 요약했다.

저자는 먼저 구술 전통과, 탈무드가 억압받던 시기 등 탈무드가 역사 전반을 보여준다. 저자는 탈무드가 없었다면 유대교 사회는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억압받았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 탈무드의 구성에서는 탈무드에 나오는 교리 뿐 아니라 문화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까지 다룬다. 유대교의 안식일같은 주제부터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들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을 다룬 세 번째 장에서는 탈무드에서 전하는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다루며 이런 방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는지 보여준다.

현재 9개국에 번역 출간된 책으로 37장에 걸쳐 탈무드의 역사와 구성, 그리고 탈무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방대한 문화적 지식을 총망라한 이 책은 탈무드 시대의 삶을 돌아보는 역사적 시각과 함께 기존 탈무드의 내용을 심도 깊게 들여다본다. 유대교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탈무드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책으로, 탈무드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부. 역사

- 1장. 탈무드란 무엇인가?
- 2장. 탈무드 시대의 삶
- 3장. 구전 율법 - 제 1세대
- 4장. 구전 율법 - 주고트의 시대

5장. 타나임(tannaim)

6장. 미슈나(mishna)의 편찬

7장. 바빌로니아의 아모라

8장. 팔레스타인의 아모라

(...)

2부. 구성과 내용

13장. 탈무드의 구성

14장. 탈무드의 페이지 배열

15장. 탈무드의 주제

16장. 기도, 축복 기도

17장. 안식일

18장. 축제

19장. 결혼과 이혼

20장. 여성의 지위

21장. 민법

22장. 형법

23장. 희생

(...)

3부. 방법

29장. 미드라시(midrash)

30장. 탈무드 식 사고

31장. 낯설고 기이한 문제들

32장. 연구 방법

33장. 탈무드와 할라카

34장. 탈무드의 하가다

35장. 학자란 무엇인가?

36장. 사람들에게 탈무드가 중요한 이유

37장. 탈무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 소개>

아딘 스타인살츠(Adin Steinsaltz)는 유대교 율법학자이자 교사, 철학자, 사회비평가로 <타임>지에서 '100년에 한 번 등장할 만한 학자'로 소개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탈무드를 현대 히브리어와 영어, 러시아어, 불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기념비적인 일을 해내고, 그 밖에도 동물학부터 신학, 사회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저서와 글을 발표했다. 또한 Israel's President Prize와 Jewish Book Council에서 현대 유대사상 부문을 비롯해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

제목 : OODLES OF NOODLES

가제 : 면 요리 한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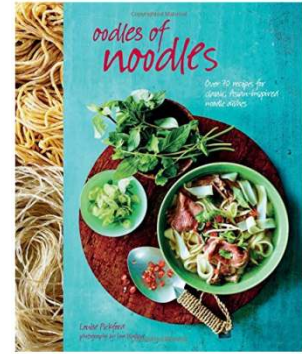
저자 : Louise Pickford

출판사: Ryland Peters & Small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요리



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면 종류별 특징, 아시아 각국의 특색 있는 메뉴까지 모두 담은 책

스프부터 샐러드, 에피타이저, 튀김, 커리 요리까지 국수는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함 식재료다. 쌀, 메밀, 달걀, 밀가루 등 국수 재료도 아주 다양하다. 면 요리의 기본부터 면의 종류, 면 요리 맛 내는 법,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맛있는 면 요리 레시피까지 이 책에 모두 담겨있다. 면과 어울리는 식용유, 국물 내는 스탁, 드레싱, 토피нг, 찍어 먹는 소스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요리법을 만날 수 있다.

차갑게 먹는 일본의 냉 메밀 국수와 연어, 관자를 넣은 만두, 베트남의 쇠고기 쌀 국수와 파파야, 돼지고기를 넣은 샐러드, 중국의 정통 새우 국수, 싱가포르 대표적인 튀김 면 요리 호키엔, 한국의 만두 넣은 면 요리를 비롯해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다양한 국가의 면 요리 레시피가 소개된다. 조리 방법과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 요리의 기원까지 소개되어 흥미를 자아낸다.





<목차>

1. 면 요리 노하우

- 한 눈에 우동 면인지 메밀 국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진 설명서

2. 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

- 필수 양념, 스톡, 식용유, 드레싱

3. 간편 요리, 간식

- 덩섬과 바삭바삭한 롤

4. 스프

- 향기로운 쌀 국수, 따뜻한 국수 요리

5. 샐러드

- 식감 좋은 절임 채소와 두부를 이용한 샐러드

6. 튀김, 커리

- 매콤한 해산물, 달콤한 코코넛을 이용한 요리

<저자 소개>

루이스 픽포드(Louise Pickford)는 20년 경력의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음식에 관한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스무디, 바비큐 등 각종 요리에 관한 요리책을 15권 발표했다.

제목 : SICK ROSE

가제 : 병든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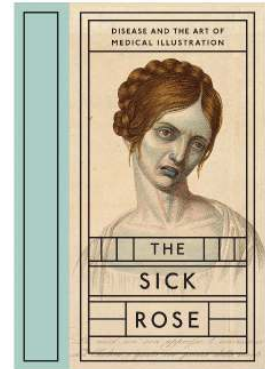
저자 : Richard Barnett

출판사: Distributed Art Publishers, Inc.

발행일: 2014년 5월 3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의학



2014년 영국 북디자인 상 수상,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던 시대에 등장한 의료 목적의 인체 상세화

산업화, 도시화, 낮은 위생수준으로 콜레라,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19세기. 아직 컬러 사진이 발명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환자의 상태와 병소를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의사의 진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책에는 인체와 질병의 진행 과정에 담긴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의료 목적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하여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절에 탄생한 놀라운 그림들이 소개된다.

근접한 각도에서 그린 상세한 묘사, 특정 부위의 횡단면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담아 다소 충격적이고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일러스트들은 보는 이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또한 당시 의사들과 화가들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생생하고 사실적인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사방에 만연한 질병과 사회의 두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집착과 같은 심정을 대변하여 설명하고, 수수께끼로만 느껴지던 병의 특성을 서서히 알아내고 마침내 물리치게 된 과정을 함께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역사적 지도와 차트, 사례 연구 노트들을 통해 저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의 두려움과 치유를 위한 열망을 비추어 본다. 의학계에 백신과 세균 이론이 자리하기 전 공중보건 개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완성한 혁신적인 그래프 등 다양한 도식들을 함께 제시한다. 한 때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잊혀진 질병들, 현대 사회에 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까지, 인간의 다양한 질병을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이 책은 2014년 영국 북디자인 상을 수상하고 <Nature>, <Independent>, <The Times> 등 많은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차>

시작하면서

- 육체에 관한 환상이 깨지다: 혁명 시대의 의학과 예술

- 공개 해부
- 선명해진 죽음
- 머리, 손, 눈
- 전문가의 시각
- 원재료

1. 피부질환 - 인체의 경계
2. 나병 - 한 꺼풀의 거죽을 넘어
3. 천연두 - 의회제정법으로 생긴 물질
4. 결핵 - 백색 페스트
5. 콜레라 - 질병의 자유무역
6. 암 - 계의 집게발
7. 심장질환 - 판막과 잡음
8. 성병 - 수은과 함께하는 일생
9. 기생충 질환 - 개척자들의 몸을 식민지로 만들다
10. 통풍 - 상류사회의 고통

<저자 소개>

리처드 바네트(Richard Barnett)는 작가, 교사,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과 의학 분야의 문화적 역사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2008년 발표한 첫 번째 저서 《Medical London: City of Diseases, City of Cures》는 BBC 라디오에서 ‘이 주의 책’으로 선정됐다. 현재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 의학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2006년 ‘Promis Prize’ 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Poetry Business prize’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100 FAMILY ADVENTURES
가제 : 우리 가족을 위한 100가지 모험
저자 : Tim, Kerry, Amy and Ella Meek
출판사: Frances Lincoln
발행일: 2015년 3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취미



온종일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이들, 온 가족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 100가지

아동 비만률은 매년 증가하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와 건강 수준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게임기,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길다. 사랑스러운 두 딸을 데리고 실제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부부가 자신들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여정이 책으로 만들어졌다.

두 부부가 쓴 이 책에는 스크린 앞에서 허비하는 아까운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자연 속에서 보내는 방법,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 관한 귀중한 정보들이 소개된다. 저자의 가족들이 직접 시도해보고 검증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이 정보들은 늘 가족 여행을 꿈꾸지만 그 방법을 찾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온 가족이 쉽게 즐길 수 있는 100가지 야외 활동과 구체적인 방법, 과정을 소개한다.

산, 바다, 강, 숲 등 자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갖가지 활동과 더불어, 전기 없이 하루 보내기, 자선 모금을 위한 자전거 타기,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캠핑하기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활동들이 함께 소개된다. 야외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절실한 활동들이 담긴 이 책을 통해 저자인 미크 가족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모험을 시도하라 조언한다. 보기만 해도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진들, 두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두 저자의 지혜롭고 열정적인 조언들, 부부의 두 아이가 어린이의 눈으로 발견한 여행 팁과 아이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도 유용하고 색다른 정보가 될 것이다.

<목차>

1. 숲에서

- 야생의 생존기술: 쉼터 짓기, 요리, 아무 것도 안 하기 / 발정기 사슴 관찰 / 산악 자전거 / 숲 속의 밤 산책 / 인파에 부대끼지 않는 산책 등

2. 물에서

- 강가의 텐트 / 다리 짓기 / 강에서 카누 타기 / 현수교 지나기 / 강물에 댐 짓기 / 강에서 보트 타기 / 카약 / 카약 사파리 등

3. 집과 가까운 곳에서

- 아웃도어에서 생일 보내기 / 자선모금 자전거 타기 / 지역 공원 청소하기 / 실내 암벽타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우리 동네 역사 공부 / 주변 탐방 등

4. 언덕과 산에서

- 미니 마테호른 등반 / 겨울 산 오르기 / 등반, 암벽 내려오기 / 폭포 찾기 / 폭포 뒤에 가보기 / 야간 하이킹 / 밤에 하산하기 / 거대한 산 등반 계획 등

5. 탐험 활동

- 암벽 타기 / 동굴 탐험 / 야생 환경에서 먹고 사는 법 / 길 따라 / 폐허가 된 장소 탐험 / 지도와 나침반으로 길 찾기 / 식량 구하기 / 보물찾기 등

6. 바다에서

- 사랑스러운 바다 오리 관찰 / 해변 청소하기 / 해안가 산책 / 해안선 탐험 / 해변에서 요리하기 / 게 잡이 / 바닷가 동굴 탐험 / 바위 사이 웅덩이 찾기 / 파도 타기 등

7. 극한의 환경에서

- 눈 위에서 요리하기 / 쌓인 눈 가지고 놀기 / 썰매 타기 / 눈 속 탐험 / 눈 속 하이킹 등

<저자 소개>

팀 미크와 케리 미크(Tim & Kerry Meek)는 에이미, 엘라 두 딸아이를 키우고 함께 여행하며 교사로 일하고 있다.